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 축소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도박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과 불법 도박사이트와의 연관성이 보도된 바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상성이 망가지면서 온라인 불법 도박이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액은 22조 7천억 규모인 데 반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그 네 배에 달하는 81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 상황 속에서 곰팡이처럼 파고드는 사행 심리는 수많은 도박 중독자들과 고통받는 가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중독 문제는 개인에게 커다란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가치를 허물어뜨리는 범-사회적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밝힌 전국 지역센터 축소계획은 시류를 거스르는 결정이자 도박 중독자들과 가족들을 외면하는 결정입니다. 사감위는 현재 14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센터를 5개의 거점센터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사감위는 지난 2014년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보고서에서 ‘지역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를, 2018년 <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보고서에는 ‘도박중독 유병률이 주요 선진국의 2~3배 수준이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현재 14개의 지역센터를 축소 하겠다는 것은 근거도 없이 이전에 발표한 중장기 계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감위의 결정은 그간 쌓아온 지역센터의 전문성과 지역사회와의 유대에 비가역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명백한 오판입니다. 도박중독 회복의 과정은 도박을 초래하는 환경, 행동 습관, 부적응적 인지, 개인의 가치관 등 심리사회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총체적 과정입니다. 이를 돕기 위한 전문심리상담 인력 증원과 지역센터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감위의 축소 결정에 대해 (사)한국심리학회와 산하 9개 분과학회는 유감을 표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도박중독 문제는 생사가 달린 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개인과 가정이 도박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고 직장을 잃거나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센터를 찾는 수많은 분이 도박중독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공성과 효과성을 추구해야 할 본 영역에 사감위는 효율성을 명목으로 도박 중독자들과 가족들의 희망을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사감위는 지역센터 축소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020. 11. 01

(사)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사)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한국학교심리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 한국코칭심리학회